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조혜경,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Perceived Empathy and Peer Support on Happiness

HeaKyoung Cho,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U시 청소년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요인은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 요인이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지와 행복감과의 관계는 또래지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지의 하위요인인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지지 요인이 도구적지지 요인보다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과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empathy and peer support on happin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3 adolescents from U-city.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First, in the effect of the empathy ability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 feeling of happiness, the sub-factors of the empathy ability, such as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particular, the cognitive empathy factor of the empathy ability has more influence on happines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peer support and feelings of happiness, the sub-factors of peer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On the other hand, the sub-factors of peer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evaluative support did not affect happiness significantly. In particular, the emotional support factors have more influence on happiness than the instrumental support factors. This means that a higher level of empathy and peer 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s results in a higher feeling of happines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preparing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adolescents' happiness

Keywords : Youth, Peer Support, Happiness, Empathy, Emotional Support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chk9071@hanmail.net

Received February 4, 2021

Accepted May 7, 2021

Revised March 30, 2021

Published Ma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반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로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는 많은 혼란과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기는 시기적으로 13세에서 20세전까지로 청년기의 전기, 중기에 이르며, 신체적, 생리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민법에서 20세 미만으로 연령층은 대체로 12~13세로부터 20세경까지로 보고 있다[1]. 따라서 이 시기를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며, 추상적인 사고와 체계적이며, 조합적인 사고와 가설적이며, 연역적 추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인지 기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2]. 위와 같이 청소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인 면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지만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3].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확실한 변화와 중요한 시기로 미래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균형 있는 발달을 도와야 한다. 또한 인생의 전환기, 도약점이 될 수 있는 시기로 발달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장 발달이 요구된다[4]. 이와 같이 찾아오는 인생의 단계에서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변인이 갖는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행복감은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청소년이 생각하고 있는 기쁨, 자기만족감이 아닌 개인의 마음에 내제된 잠재력 표출을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5]. 또한 행복은 시대나 사회, 문화적 여건 등의 다양한 기준에 결정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삶의 목표가 제시되지만 동일한 조건에도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6]. 따라서 외부의 조건이나 우연한 행운보다 개인이나 잠재된 재능, 특성을 찾아 연습과 개발로 되어지는 삶의 습관이나 기술이라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은 누구나 행복한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7].

행복감을 추구하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은 학교, 가정, 또래 등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기에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된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은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는 고통, 공감적인 반응으로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행동이다[8]. 또한 다른 사람의 열정과 감정, 고통을 감정 속에 들어가거나 느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보다 개인적,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정서라고

한다[9]. 따라서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 내적 경험 이해, 상대방 이해를 통한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상호작용으로, 자신과 타인의 분리된 것을 인식, 상황의 이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인 것이다[10]. 이와 같이 청소년이 가진 공감능력과 함께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나는 또 다른 변인은 또래지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또래지지를 살펴보면, 또래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연령, 성숙 수준이 비슷하므로 생활 속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동일시, 정신적 발달, 상호작용하는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11]. 또한 청소년 또래의 지지가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의 비중이 커지며, 또래의 영향력이 커져 부모가 아닌 또래로부터 자율성, 독립성 획득,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라 한다[12]. 따라서 또래지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행복감은 청소년의 공감능력 또래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이 변인들 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파악하며, 청소년의 행복감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밝혀내는 것은 청소년들의 방향 설정이나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 되었지만 청소년의 공감능력, 또래지지,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8월 05일부터 2020년 10월 03일까지 U시의 청소년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2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13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공감능력 30문항, 또래지지 9문항, 행복감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력, 종교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송지애[14]가 사용한 측정도구는 인지적 공감 10문항, 정서적 공감 20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또래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최윤선[15]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시연[16]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주요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의 전체 신뢰도는 .899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인지적공감 .800, 정서적공감 .852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또래지지 전체 신뢰도는 .906의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지지 .891, 정보적지지 .889, 도구적지지 .801, 평가적지지 .848의 신뢰도가 나타났다. 행복감의 전체 신뢰도 또한 .954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Empathy	Cognitive empathy	10	.800	.899
	Emotional empathy	20	.852	
Peer support	Emotional support	3	.891	.906
	Informational support	2	.889	
	Instrumental support	2	.801	
	Evaluative support	2	.848	
Happiness		29	.954	.954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주요 변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과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1.1 공감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공감능력 요인의 전체 평균 점수는 $M=3.46$ 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공감($M=3.60$) 요인이 정서적공감($M=3.39$) 요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게 지각하며 특히 인지적공감의 공감능력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empathy skills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Cognitive empathy	113	1.70	4.20	3.60	.46
Emotional empathy	113	1.45	4.20	3.39	.46
Total	113	1.57	4.17	3.46	.43

3.1.2 또래지지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의 또래지지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또래지지 요인 전체 평균 점수는 M=3.59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래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지지(M=3.71)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구적지지(M=3.64), 정보적지지(M=3.58), 평가적지지(M=3.43) 순으로 모두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또래지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또래지지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peer support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motional support	113	1.00	5.00	3.71	.71
Informational support	113	1.00	5.00	3.58	.89
Instrumental support	113	1.00	5.00	3.64	.86
Evaluative support	113	1.00	5.00	3.43	.78
Total	113	1.00	5.00	3.59	.72

3.1.3 행복감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감 요인 전체는 M=3.92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감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happiness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Total	113	1.31	3.92	3.45	.52

3.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공감능력, 또래지지,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 요인과 또래지지 요인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656\sim.774, p<.01$). 공감능력 요인과 행복감 요인 또한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r=.711\sim.753, p<.01$). 그리고 또래지지 요인과 행복감 요인도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676\sim.824,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관계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Classification	Empathy		Peer support				Happiness
	Cognitive	Emotional	Emotional	Informational	Instrumental	Evaluative	
Empathy	Cognitive	1					
	Emotional	.753**	1				
Peer support	Emotional	.774**	.760**	1			
	Informational	.712**	.689**	.611**	1		
	Instrumental	.656**	.707**	.743**	.680**	1	
	Evaluative	.703**	.743**	.716**	.789**	.742**	1
Happiness	.752**	.711**	.824**	.676**	.799**	.732**	1

* $p<.05$, ** $p<.01$

3.3 청소년의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3.3.1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감에 대한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613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1.3%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390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87.299,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beta=.499, p<.001$), 정서적 공감($\beta=.335, p<.001$)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이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

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effect of youth's empathy ability on happi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Happiness	Constant	.111	.255		.436**	
	Cognitive empathy	.568	.103	.499	5.542***	.433
	Emotional empathy	.380	.102	.335	3.717***	.433

p<.01, *p<.001

3.3.2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감에 대한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770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7.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005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90.359,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지지(β =.462, p<.001),

Table 8. The effect of adolescents' peer support on happi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Happiness	Constant	1.077	.130		8.264***	
	Emotional support	.337	.054	.462	6.231***	.388
	Informational support	.073	.045	.124	1.603	.358
	Instrumental support	.197	.048	.326	4.131***	.343
	Evaluative support	.042	.059	.062	.704	.271

***p<.001

도구적지지(β =.326, p<.001)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정보적지지(β =.124, p>.05), 평가적지지(β =.062, p>.05)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지지 요인이 도구적지지 요인보다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요인은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 요인이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복감에 대한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613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1.3%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390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87.299,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β =.499, p<.001), 정서적 공감(β =.335, p<.001)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이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지지 하위요인인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지지 요인이 도구적지지 요인보다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감에 대한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770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7.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005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90.359,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지지($\beta = .462, p<.001$), 도구적지지($\beta = .326, p<.001$)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정보적지지($\beta = .124, p>.05$), 평가적지지($\beta = .062, p>.05$)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지지 요인이 도구적지지 요인보다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차적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행복감이며 공감능력과 또래지지의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능력과 또래지지는 행복감을 돕는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10]의 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요인은 행복감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해 공감능력, 또래지지, 행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부차적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크게 강조되는 것이 공감능력, 또래지지인 것으로 보아 그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감이 개인, 청소년, 가족뿐만 아니라 또래의 공동체에서 소속감, 공감능력, 안정감을 가지는 것으로 행복감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의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간 연구로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연구로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 행복감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W. Kim,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30-35, 2016.
- [2] K. A. Park, H. S. Kim, H. J. Lee, O. H. Kim, "The Effect of family and personal variable of internet addicted young adul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4, No.1, pp.41-51, 2009.
DOI: <https://doi.org/10.17315/kihp.2009.14.1.003>
- [3] N. J. J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and Self-efficacy, Mental Health, Deviant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pp.102-126, 2013.
- [4] S. M. Yu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Sports and Their Recognition of Health*,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43-46, 2004.
- [5] G. H. S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Sports and Their Recognition of Health*,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pp.61-69, 2013.
- [6] S. J. Lim, E. J. Yeo, H. W. Lee, "The effects of job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33, No.3, pp.301-318, 2013.
DOI: <https://doi.org/10.18023/kece.2013.33.3.013>
- [7] H. J. Han, *A Delphi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Happiness Education Program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pp.122-132, 2014.
- [8] Seligman, Martin E.P,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p.321, New York : Free Press, 2004
- [9] S. Y. Lee,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Sympathy-Based Discussion Instruction Model for Young Childre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pp.192-205, 2016.

- [10] W. Y. Chun, *Development of a Test Scale of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for Teacher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pp.102-112, 2016.
- [11] S. J. Hong, *A Study on peer relationship and ego-identity in adolescent*,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pp.44-47, 2004.
- [12] I. S. Kim, K. N. Lee, "Parent Attachment, Peer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7, No.2, pp.97-113, 2004.
- [13] J. G. Kim, *Influence that the ego resilience of youth and their age attachment give in school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shin Christian University, pp.35-43, 2014.
- [14] J. A. Song,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mpathy Reading Education on Empathy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pp.60-62, 2018.
- [15] Y.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er Support and Family Conflic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pp.62-66, 2019.
- [16] S. Y. Kim, *Analysis of the structure am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sense of happiness, enthusiasm for the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with their jobs, efficacy, and interactions with young childre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pp.50-58, 2014.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교육

조 혜 경(HeaKyoung Cho)

[정회원]



- 2020년 2월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육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큰사랑드림 콘텐츠연구소 대표
- 2020년 2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교육상담